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 하정우·김준한·정수정·심은경 총출동! 세 자매, 건물주 등장에 텐션 200% 폭발 속 대혼돈 예고!

2026. 2. 26.







2026. 02. 26. - 전국 동호인들의 성지 <자매치킨>이 이번엔 ‘발품’ 하나로 뭉친 초특급 게스트들과 함께 세 번째 영업에 나선다.

<자매치킨>은 취미에 진심, 치킨에 덕심인 수지, 이랑, 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

28일(토) 공개되는 3화에는 ‘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회원으로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이 총출동한다. 부동산 임장부터 인형 뽑기, 아이돌 굿즈 탐방까지 ‘발품’ 하나로 뭉친 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펼치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토크 열기를 끌어올린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장사가 잘돼야 영끌이라도 갚지”라는 자매들의 현실 탄식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어 등장한 하정우는 “내가 봤을 땐 사주고 빨리 끝내자”라는 특유의 쿨한 멘트로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들고, 심은경은 “제가 쓸게요! 있는 거 여기 다 주세요”라며 화끈한 플렉스를 선언해 현장을 달군다. 여기에 정수정, 김준한 역시 각자의 집념과 취향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범상치 않은 토크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현장의 분위기는 하정우와 <자매치킨> 자매와의 티격태격 케미에서 정점을 찍는다. 하정우는 순자와 순이를 헛갈리며 “둘이 언제 바뀌어? 흐름이 아예 없구나 여기”라는 직진 멘트를 날려 웃음을 자아낸다. 이에 자매들은 “오빠 차례인데 대사를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며 역공을 쏟아내자, 하정우는 “분명히 뭐가 야로가 있을 텐데, YARO”라며 끝까지 의심을 끈을 놓지 않아 폭소를 더한다.

수위 조절 없는 리얼 토크는 예측 불가 영역으로 치닫는다. 이수지의 “화장실 데려다줘, 응가 할 때까지 같이 봐줘”라는 돌발 멘트부터 “커플끼리 똥도 같이 싸나?”라는 아찔한 질문까지 터지자 당황한 심은경은 “잠깐만 쉬고 올게요”라며 혼돈의 현장을 여러 차례 이탈했다는 후문. 이어 “오늘은 임장! 내일은 건물주!”를 외치는 회원들의 단체 구호는 ‘발.사.모’의 과몰입 세계관은 정점을 찍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세 자매의 대체불가 케미로 매회 공개 직후 화제를 불러오는 <자매치킨>이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과 또 어떤 레전드 웃음을 갱신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층 더 요란해진 웃음으로 돌아온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